

2025/11/20

삼양식품

권우정 책임연구원
20240006@iprovest.com

중국 공장 증설 관련 코멘트

11/19 중국 CAPA 기준 8.2억식 → 11.3억식 증설 변경 공시. 기존 계획 대비 CAPA +38% 증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중국 및 글로벌 수요에 대응한 선제적 투자 결정

중국 공장 증설 관련 코멘트

삼양식품은 전일(11/19) 공시를 통해 중국 자성 현지 생산법인 투자 계획을 정정 공시했음. 기존 6개 라인(봉지면 5개, 용기면 1개) 증설 계획을 8개 라인(봉지면 6개, 용기면 2개)으로 확대했으며, 예상 투자금액도 약 2,014억원 → 2,072억원으로 상향됨. 이에 따라 중국 공장 CAPA는 기존 계획 8.2억식 → 11.3억식으로 38% 증가함. 추가 라인 2개에 필요한 설비투자액은 약 230억원 수준이나, 기존 계획 대비 건축비를 절감해 일부 상쇄함.

이번 증설 공시의 핵심은 중국 공장 완공 전에 선제적으로 증설 확대를 결정했다는 점임.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중국 및 글로벌 수요에 대한 회사의 강한 확신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. 현재 중국 내 1선 도시 침투율은 100% 수준이나, 2선도시 약 60%, 3선도시 확장도 이제 확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임. 특히 1선 도시 인구 비중은 약 30%에 불과해, 향후 2~3선도시 확장 여지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. 현재 중국향 재고 증가 속도 대비 판매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상황.

한편, 현재 국내 공장은 여유 부지 제약으로 추가 설비 투입이 어려운 반면, 중국 공장은 설립 초기부터 향후 CAPA 확장을 전제로 여유 부지를 확보해 지어진 공장이었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공 전 증설을 단행한 것은 중국 및 글로벌 시장 성장에 대한 회사의 강한 확신과 선제적 생산능력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됨.

자사주 약 1천억원 처분 예정: 설비 투자 확대 목적

전일 삼양식품은 자기주식 74,887주(발행주식의 0.99%)에 대한 처분 결정을 공시했음. 처분 예정 금액은 11/18 종가 기준 약 1,027억원이며, 실제 처분가는 거래 전일 종가에 할인율을 적용해 최종 확정됨. 처분기간은 11/20~28이며, 전량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. 거래 상대방은 Viridian Asset Management(24,963주), Jump Trading(24,962주), Weiss Asset Management(24,962주) 등 해외 기관투자자 3곳으로, 모두 중장기적 투자 목적의 신규 해외 투자자로 파악됨.

이번 자기주식 처분의 목적은 원주 공장 내 중국향 대응 소스 설비 투자 재원 마련임. 분기보고서 기준 해당 투자 규모는 781억원(2025.09~2027.01)이며, 건축비 등을 감안시 총 820~830억원 수준으로 예상.
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항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.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전일기준 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■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■ 기준일자:2025.09.30

구분	Buy(매수)	Trading Buy(매수)	Hold(보유)	Sell(매도)
비율	94.7	3.8	1.5	0.0

[업종 투자의견]

Overweight(비중확대): 업종 펀더멘탈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
Underweight(비중축소): 업종 펀더멘탈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

Neutral(중립): 업종 펀더멘탈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

[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] 향후 6개월 기준, 2015.6.1(Strong Buy 등급 삭제)

Buy(매수):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%이상

Hold(보유):KOSPI 대비 기대수익률 -10~10%

Trading Buy:KOSPI 대비 10%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

Sell(매도):KOSPI 대비 기대수익률 -10% 이하